

사회적 유능성에 형제유무와 정서지능이 미치는 영향 :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The Influences of Sibling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Social Competence :
Conflict Solving Strategies as Mediators*

김윤희(Yun Hee Kim)¹⁾

강민주(Min Ju Kang)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iblings, emotional intelligence (E.I.), and conflict solving strategies (integrating-compromising strategy/ dominating strategy)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subjects were 421 6th graders (231 boys, 190 girls) in Seoul. The children filled out questionnaires on their siblings, E.I., and conflict solving strategies. Their teachers were asked to rate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edi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oth integrating-compromising strategies and dominating strategie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I. and social competence. Children with higher E.I. reported that they used more integrating-compromising strategies, which in turn was related to higher social competence. Those who scored low on E.I. reported that they used more dominating strategies, which in turn was related to lower social competence. Although the effects of siblings did not have any direct effects on social competence, it was found to be related to the type of conflict solving strategies most frequently used. Compared to the children with siblings, the children without siblings used more dominating strategies,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lower social competence.

Key Words :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형제(sibling), 갈등 해결전략(conflict solving strategy).

* 본 논문은 2010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¹⁾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²⁾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n Ju Kang,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262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mjkgang@yonsei.ac.kr

I. 서 론

아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대인과의 관계를 확장하게 된다. 그 속에서 그들은 또래와 함께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개인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는 또래가 아동에게 일시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을 뛰어 넘어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대인과의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개인의 사회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Waters & Sroufe, 1983).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유능성이 잘 발달할수록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Howes, 1987), 또래 사이에 잘 수용되고 책임감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목표를 보다 유능하게 획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Yeates & Selman, 1989).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중 형제유무는 아동이 미리 사회적 경험을 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에 대해 Dunn(1983)은 아동기의 형제간 상호작용은 또래관계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와의 관계적 경험을 기반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는 곧 사회적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형제와 함께 성장한 아동은 외동아와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경(2008)은 사회적 유능성에 형제유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는데, 형제아의 경우, 형제와의 상호작용경험이 있

는 아동은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초등학교 5학년의 형제아와 외동아를 비교한 또 다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형제아가 사회적 능력과 인지능력이 더 높았으며, 중학교 1, 2학년도 형제아가 또래관계의 질과 유능성,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의 영역에서 외동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송나리 · 박성연, 1993). 앞선 선행연구들을 통해 형제유무는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때문에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에서 형제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을 살펴 본 국내연구를 검색한 결과, 최근 5년 내에 보고된 연구는 10개 이내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임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비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1.2명으로 외동아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통계청, 2009), 형제유무에 따른 현 시대 학령 후기 아동들의 사회적 유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인구학적 변인 외에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과 관련하여 Goleman(1995)은 대인과의 관계에 있어 적절하게 반응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서발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정서적 능력은 아동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 및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써 정서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적 능력의 하위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의하면, 정서를 인식, 표현, 활용, 그리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고려한 원만한 상호작용을 돕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서도 건설적인 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Mavroveli, Petrides, Rieffe, & Backer, 2007). 예를 들어, 자기보고식 측정법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살펴본 진정미와 유미숙(2006)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이해하며 정서를 잘 통제할수록 또래와 친밀하게 잘 어울렸고,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지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을 경우, 또래로부터 배척되거나 학교생활 부적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Goleman, 1995).

더불어 아동기 후반에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Piaget, 1964) 또래와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경험하며, 더욱 빈번하게 직면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아동이 또래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Hartup(1983)은 아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달시키면서 사회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사회적으로 더욱 유능한 아동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즉, 또래와의 갈등 해결방식은 사회적 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어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변인을 규명하고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또 다른 개인 내적 요인으로써 고려되고 있다. 갈등해결과 관련된 선행연구(Keltikangas-Järvinen, 2001)를 살펴보면, 아동이 공격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또래로부터 거절당하고 배척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지속적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후반에도 나타나 사회적응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건설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할 경우, 아동은 사회에 바람직하게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Pettit, Dodge & Brown, 1988). 이에 더해 Shure와 Spivack(1972)에 따르면,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아동은 이후에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달하고, 높은 자존감과 함께 사회 문제에 대한 높은 탄력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또래와의 갈등은 존재 여부보다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며, 아동이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에 따라 사회화에 부정적·긍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을 것이다(Laurens et al., 1996).

지금까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형제유무와 정서지능은 갈등해결전략과도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형제아는 형제관계를 통해 또래와의 갈등을 미리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Dunn, 1983). 반면, 외동아는 상호관계의 영향을 경험할 기회에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형제아에 비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집중하게 된다(Jiao, Ji, & Jing, 1986). 이러한 점에서 외동아는 형제가 있는 아동에 비해 친구와의 갈등에 있어 지배전략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미진·김광웅, 2002). 또한, 아동의 정서지능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된다. Lemerise와 Arsenio(2000)에 따르면, 아동은 갈등상황에 직면하면 상대방의 정서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통해 인지과정에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정서지능이 잘 발달한 아동일수록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갈등해결책을 사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결과(Salovey & Mayer, 1990)와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 인간관계에서 위축되고, 문제 해결을 잘

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Goleman, 1995)와 같은 맥락이다. 국내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의 발달은 갈등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심혜숙·왕정희, 2001),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절충 및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지배전략을 적게 사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민영·김광웅·조유진, 2006).

요약하면, 아동의 형제유무, 정서지능, 갈등해결전략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됨과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의 형제와의 상호작용 경험과 정서지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차이를 가져 올 것이라 예측된다. 이처럼 각 변인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는 다수 진행 된 바 있는데, 예를 들어, 학령기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전정미·유미숙, 2006), 형제유무와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우수경, 2008), 대인문제해결력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심혜숙·왕정희, 2001)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 간의 인과적 경로를 통합적으로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그동안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을 자기보고식 측정법(심혜숙·왕정희, 2001; 전정미·유미숙, 2006)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관계의 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 3자의 객관적 관점으로 평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아동기에 남아와 여아는 서로 다른 역할 기대를 가지면서 성장하기 때문에(정옥분, 2006),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가

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지능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다는 연구(송지혜·황혜신, 2009)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심혜숙·왕정희, 2001)를 모두 찾아 볼 수 있다. 갈등해결전략의 경우, 절충 및 협력 전략은 여아가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지배전략은 남아가 더욱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배선영·이은해, 2000)와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Fonzi et al., 1997)등 다양한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은 척도로 초등학교 5학년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한 김지형과 박경자(2010)은 여아가 남아보다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높고 원만하다는 결과를 보인 것에 반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다는 연구(송지혜·황혜신, 2009)도 나타나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와 함께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형제유무와 정서지능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변인을 규명함에 따라 아동의 건전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정서지능, 갈등해결전략,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사회적 유능성에 형제유무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절충 및 협력전략과 지배전략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사회적 유능성에 정서지능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절충 및 협력전략과 지배전략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6학년으로, 총 430부를 배부하여 427부를 수거했다. 그 중 검사문항이 누락되거나 한 가지 답으로 응답한 6부를 제외하여 421부(남아 231명, 여아 190명)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형제아가 370명, 외동아가 51명이었다. 학령기 아동은 친구와의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 당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Hartup et al., 1993), 아동기 후반에서 청소년기 초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정서성의 발달과 함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인지가 가능해진다고 본다(Harter & Buddin, 1987). 따라서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형제유무와 정서지능 그리고 갈등해결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도구

1) 정서지능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와 Mayer (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 (1996)이 제작한 고학년용(초등학교 3~6학년) 자기보고식 정서지능 검사를 사용하였다. 하위 척도는 정서인식 8문항(예,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정서표현 7문항(예, “나는 동생이나 동네 꼬마가 귀여워도 안아 주거나 쓰다듬어 주지 못한 적이 있다”), 감정이입 7문항(예, “나는 몸이 약한 친구를 보면 불쌍하고 걱정이 된다.”), 정서조절 15문항(예, “나는 우울할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

한다.”), 정서활용 10문항(예, “나는 행복한 순간의 느낌을 오래 간직하려고 노력한다.”)으로써 총 47문항으로 되어있다.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그리고 정서조절에 대한 1~37번 문항까지에 대한 응답은 ‘항상 그렇다’(2점), ‘가끔 그런 편이다’(1점), ‘그렇지 않다’(0점)로 구분하여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다. 또한, 정서활용에 관한 38~47번까지의 문항은 ①과 ②번의 두 가지 보기 중 자신에게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는 선택형 척도로써 ①번 응답은 2점, ②번 응답은 0점을 부여한다. 정서표현과 정서활용 하위요인은 역채점하며, 다섯 가지 영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본다.

2) 갈등해결전략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혜와 동료들(2000)의 청소년용 갈등해결전략척도를 배선영과 이은혜(2000)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적절하도록 문항 내용을 수정한 것에 하지원(2004)이 문항을 추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갈등해결전략의 종류는 절충 및 협력, 회피, 양보 그리고 지배전략으로 네 가지이며, 본 연구에서는 절충 및 협력전략(예, “○○와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를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려고 한다.”)과 지배전략(예, “나는 할 수만 있다면 ○○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에 대한 척도만 각각 7문항씩 총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에서 갈등해결전략 중 이 두 가지만을 택한 이유는 절충 및 협력전략과 회피전략이 아동 후기에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배선영 · 이은혜, 2000)과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은 절충 및 협력전략과 양보전략을 함께 사용한다는 선행연구(홍선표, 2008)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절충 및 협력전략, 회피전략, 그리고 양보

전략 중 학령기 후반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절충 및 협력전략(이민영 외, 2006)과 이 전략과 반대의 특징을 갖는 지배전략만을 예측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갈등해결전략의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그렇지 않다(1점)’, ‘조금 그렇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많이 그렇다(4점)’, 그리고 ‘아주 많이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3)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유능성의 측정은 Hightower와 동료들(1986)의 개발한 The Teacher-Child Rating Scale (T-CRS)을 정현희(2002)가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교사용-아동 평정척도’를 통해 담임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 척도 20문항을 사용하였고, 교사가 질문지의 해당 문항이 얼마나 아동을 잘 묘사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에 응답하였다. 하위영역은 좌절 인내(예,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자기 주장적 사회적 기술(예, “또래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다”), 과제 지향(예, “주어진 과제를 완수한다.”), 또래 관계 기술(예, “급우들이 이 아동과 짝이 되길 원한다.”)로 5문항씩 네 가지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2009년 9월에 연구자가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후, 질문지

를 배포하였고, 5일 후에 찾아가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7.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와 *t*검증(성별에 따른 차이)을 실시하였고,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또한, 형제유무와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Amos 7.0의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절성은 표준 χ^2 , CFI, NFI, 그리고 RMSEA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을 통해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측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성별에 따른 차이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성별에 따른 차이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첫째, 정서지능의 전체점수는 0점~2점의 범위에서 1.26으로 아동기 후반에는 정서지능이 전반적으로 발달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갈등해결 전략은 1점~5점 범위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이 3.35, 지배전략이 2.35점으로 나타나 절충 및 협력전략을 지배전략보다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유능성의 전체점수가 1점~5점 범위에서 3.33점으로 본 연구대상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이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정서지능은 전체점수와 하위영역 중 감정어입과 정서조절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표 1> 측정 변인들의 문항 평균 및 표준편차와 성별에 따른 차이 (N = 421)

변인(범위)	통계치	M(SD)	남아(N = 231) 여아(N = 190)		t
			M(SD)	M(SD)	
정서지능 (0점~2점)	정서인식	1.65(.29)	1.64(.29)	1.68(.28)	-1.40
	정서표현	1.28(.44)	1.26(.44)	1.30(.44)	-1.04
	감정이입	1.10(.46)	1.03(.47)	1.19(.44)	-3.64***
	정서조절	1.30(.39)	1.23(.41)	1.38(.36)	-3.89***
	정서활용	.95(.47)	.92(.47)	.99(.48)	-1.15
	전체점수	1.26(.26)	1.22(.26)	1.31(.25)	-3.58***
갈등해결전략 (1점~5점)	절충협력 ¹⁾	3.35(.84)	3.23(.81)	3.49(.85)	-3.28**
	지배전략	2.35(.97)	2.49(1.02)	2.18(.91)	3.32***
사회적 유능성 (1점~5점)	좌절인내	3.43(.79)	3.34(.82)	3.54(.73)	-2.63**
	자기주장 ²⁾	3.13(.92)	3.03(.94)	3.25(.88)	-2.51*
	과제지향	3.39(.98)	3.16(1.00)	3.66(.89)	-5.37**
	또래관계기술	3.36(.90)	3.27(.91)	3.47(.86)	-2.28*
	전체점수	3.33(.77)	3.20(.80)	3.48(.70)	-3.82***

*p < .05. **p < .01. ***p < .001.

갈등해결전략에서는 절충 및 협력전략을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이 사용했고, 지배전략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은 전체점수와 모든 하위 영역에서 여아가 유의하게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01~1.07)와 첨도(.07~1.09)를 살펴본 결과, 정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대우도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다.

2. 연구모형의 분석

1) 연구모형의 상관관계 분석

이론적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

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첫째, 정서지능은 갈등해결전략에 따라 다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아동의 정서지능의 전체점수와 모든 하위영역은 절충 및 협력전략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정서지능의 전체점수와 하위영역 중 정서인식, 감정이입, 그리고 정서조절이 지배전략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성의 전체점수 및 모든 하위영역의 관계에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절충 및 협력전략은 사회적 유능성의 전체점수와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하게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지배전략은 사회적 유능성의 전체점수와 하위영역 중 좌절인내, 과제지향, 또래관계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절충 및 협력과 지배의 갈등해결전략은 정서지능과

1) 절충 및 협력전략

2) 자기주장적 사회적 기술

<표 2>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정서지능	1.정서인식	1											
	2.정서표현	.12*	1										
	3.감정이입	.26**	-.02	1									
	4.정서활용	.14**	.14**	.32**	1								
	5.정서조절	.39**	.09	.49**	.50**	1							
갈등해결 전략	6.전체점수	.52**	.43**	.68**	.71**	.77**	1						
	7.절충협력	.38**	.11*	.36**	.29**	.45**	.49**	1					
	8.지배전략	-.01**	-.08	-.11*	-.05	-.10*	-.11*	-.08	1				
사회적 유능성	9.좌절인내	.24**	.06	.21**	.31**	.29**	.35**	.24**	-.12*	1			
	10.과제지향	.29**	.08	.24**	.27**	.29**	.36**	.31**	-.17**	.73**	1		
	11.자기주장	.27**	.09	.21**	.15**	.24**	.30**	.32**	-.05	.55**	.71**	1	
	12.또래관계	.25**	.15**	.22**	.15**	.28**	.33**	.27**	-.14**	.59**	.62**	.66**	1
	13.전체점수	.31**	.11*	.26**	.25**	.32**	.39**	.34**	-.14**	.83**	.90**	.86**	.84**

* $p < .05$. ** $p < .01$. *** $p < .001$.

사회적 유능성과 관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유능성의 예측변인을 살펴보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2) 연구모형³⁾의 분석

아동의 형제유무 및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성 사이에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정지수(M.I.)⁴⁾와 모수변화(Par Change)⁵⁾

3)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써 사회적 유능성을, 매개변수로써 두 가지 갈등해결전략(절충 및 협력전략 및 지배전략)을 설정하고, 독립변수인 형제유무와 정서지능의 모형 상정에 따른 적합도를 비교하여 사회적 유능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제유무만을 독립변수로 상정한 모형($\chi^2/df = 2.21$, CFI = .98, TLI = .97, RMSEA = .054) 및 정서지능만을 독립변수로 상정한 모형($\chi^2/df = 2.48$, CFI = .96, TLI = .94, RMSEA = .059)을 형제유무와 정서지능 두 가지를 모두 한 모형에 설정한 것과 비교한 결과, 두 가지 독립변수를 함께 설명해주는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 모형을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p.11).

4)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 M.I.) : 모델의 전반

를 바탕으로 e10-e11, e8-e11, e1-e6의 오차변량 공분산 경로를 설정⁶⁾하였다. 이를 통해 형제유무와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갈등해결전략이 부분매개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형제유무와 정서지능의 직접적 영향을 제거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본 연구모형과의 χ^2 검증을 통해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모형의 χ^2 차이의 값은 10.3($df = 1$)

적인 χ^2 값의 개선을 의미하며, 수정지수가 9.0을 초과하면 유의한 경로를 가질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Fassinger, 1987).

5) 모수변화(Parameter Change : Par Change) : 고정모수에 대한 예측 변화의 방향(+ , -)과 크기를 나타내며, 계수가 양의 방향을 가지면 두 변인은 유의한 경로를 가진다(배병렬, 2009).

6)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자기 주장적 사회적 기술(e10)과 또래관계기술(e11)(M.I. = 18.19, Par Change = .081), 좌절인내(e8)와 또래관계기술(e11)(M.I. = 11.39, Par Change = .055), 정서인식(e1)과 절충 및 협력전략(e6) (M.I. = 11.85, Par Change = .031)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표 3>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Model	χ^2	df	χ^2/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부분매개모형)	98.7	46	2.14	.96	.95	.052
경쟁모형 (완전매개모형)	109.0	47	2.32	.96	.94	.056

로, $\alpha = .05$ 수준에서 χ^2 의 임계치 3.84($df = 1$) 보다 크기 때문에 두 모형 χ^2 차이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두 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적합한 수준인데, 완전매개모형보다 부분매개모형이 더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CFI와 TLI는 .90 이상, RMSEA는 .052로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의 경로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형제유무는 절충 및 협력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08, p > .05$). 이에 반해, 형제유무는 지배전략($\beta = -.13, p < .05$)과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9, p < .05$), 지배전략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 = -.12, p < .05$). 그러나 이 형제유무가 지배전략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형제유무는 지배전략과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지배전략은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효과를 갖지만 형제유무와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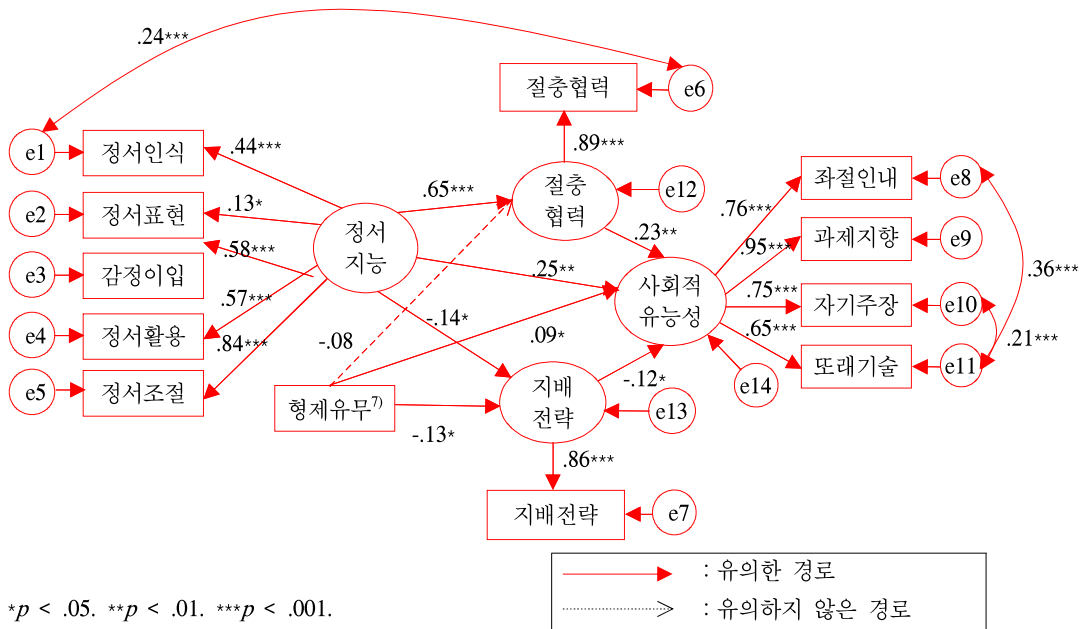
정서지능은 절충 및 협력전략($\beta = .61, p < .001$)과 지배전략($\beta = -.14, p < .05$), 사회적 유능성($\beta = .25, p < .01$)에 각각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

며, 정서지능이 절충 및 협력전략과 지배전략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었다($p < .01$). 또한,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써 절충 및 협력전략($\beta = .23, p < .01$)과 지배전략($\beta = -.12, p < .05$)의 영향이 유의미했다. 다시 말해, 정서지능은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절충 및 협력전략과 지배전략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 또한 미치기 때문에, 절충 및 협력전략과 지배전략은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성 사이에 부분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경로들은 형제유무, 정서지능, 갈등해결 전략에 의해 23%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형제아가 외동아보다 사회적 유능성이 높으며, 지배전략을 덜 사용하였으며, 지배전략을 덜 사용함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정서지능은 높은 아동은 사회적 유능성이 높으며, 절충 및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지배전략을 덜 사용함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형제유무, 정서지능, 갈등해결전략,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의 일반적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변인들이 사회적 유능성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정서지능 및 형제유무와 갈등해결전략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 관계의 경로

<표 4> 수정모형의 경로계수와 직·간접 및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E.
	비표준화 계수(β)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형제유무 → 절충 및 협력전략	-.18	-.08	-	-	-.18	-.08	.11
형제유무 → 지배전략	-.35*	-.13*	-	-	-.35*	-.13*	.14
정서지능 → 절충 및 협력전략	1.37***	.61***	-	-	1.37***	.61***	.14
정서지능 → 지배전략	-.36*	-.14*	-	-	-.36*	-.14*	.16
절충 및 협력전략 → 사회적 유능성	.29**	.23**	-	-	.29**	.23**	.09
지배전략 → 사회적 유능성	-.13*	-.12*	-	-	-.13*	-.12*	.06
형제유무 → (지배전략) → 사회적 유능성	.26*	.09*	.00	.00	.26*	.09*	.13
정서지능 → (절충 및 협력전략 / 지배전략) → 사회적 유능성	.70**	.25**	.45**	.16**	1.15**	.41**	.22

* $p < .05$. ** $p < .01$. *** $p < .001$.

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7) ‘외동아’는 0, ‘형제아’는 1로 코딩하였다.

1. 측정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

정서지능의 전체점수와 하위영역 중 감정이입 및 정서조절이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의 정서지능이 전반

적으로 남아보다 발달하였다고 제시한 연구(Mayer & Salovey, 1997), 감정이입능력이 여아가 남아보다 뛰어나다고 본 이주리(2002)의 연구, 그리고 정서조절을 여아가 더욱 잘 한다고 나타난 연구(장미선 · 문혁준, 2006)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정서적 능력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아동의 정서적 발달 측면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은 학령기동안 정서의 이해, 표현, 조절 등의 다양한 정서적 책략을 습득하게 된다(Shaffer, 2005). 특히 여아는 친밀하게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여성의 정서적 특성으로 학습하기 때문에(정옥분, 2006) 여러 가지 상황에 정서를 이입시켜보고 조절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아의 경우,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것으로 배우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숨기려한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동일한 척도를 통해 아동기 후반의 정서지능을 측정할 때 다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능력만 여아가 더 뛰어나거나(심혜숙 · 왕정희, 2001),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에서만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장미선 · 문혁준, 2006)가 보고된 바 있다. 통합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정서지능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하위영역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추후연구에서는 하위영역별로 남아와 여아가 각각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갈등해결전략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절충 및 협력전략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지배전략은 남아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배선영 · 이은혜, 2000; 하지원, 2004)을 지지하였다. 이는 성별에 따른 사

회문화적 기대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여아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이 보다 기대되기 때문에(정옥분, 2006) 상대적으로 도덕적 규범을 많이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용인되는 행동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갈등을 가능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남아는 강인함, 경쟁, 그리고 지배성과 같은 것이 남성적인 것이라고 학습하며, 성취 지향적으로 성장할 것을 요구받는다(Rabinowitz & Cochran, 1994). 이에 남아는 많은 상황의 결과를 승-패로써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해결전략을 추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남아와 여아가 갈등상황에서 각기 다른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기대되는 상호작용의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사회적 유능성을 살펴보면 전체점수와 모든 하위영역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유의하게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과제에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한다고 보고한 연구(김지형 · 박경자, 2010), 여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건설적인 사회적 기술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우수경,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아와 여아의 사회적 행동의 경향성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아는 놀이를 할 때, 어른과 거리를 두고 큰 무리를 형성하여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친구들과 간의 신체적 충돌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승-패를 위한 경쟁을 빈번히 접하게 된다(정옥분, 2006; Rabinowitz & Cochran, 1994). 반면, 여아는 단일한 활동에 집중하고, 또래와의 친밀감을 위해 자신을 자주 노출하고 공유하며, 친구와의 갈등에 더욱 깊게 고민하는 특성이 있다(Hartup, 1989). 이러한 남아

와 여아의 사회적 행동의 경향성 차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법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2. 형제유무가 갈등해결전략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아동의 형제유무가 갈등해결전략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형제유무는 절충 및 협력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아동이 학령 후기가 되면 전반적으로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학습함에 따라 점차 협력하고 절충하는 전략을 더욱 사용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Laursen & Collins, 1994). 한편, 형제유무는 지배전략과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외동아의 경우, 형제아보다 지배전략을 더욱 많이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유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배전략은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대인과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Keltikangas-Järvinen, 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더불어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외동아가 지배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결과(박미진·이광웅, 2002)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Jiao et al., 1986)에 따르면, 외동아는 형제아에 비해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보다 적게 경험함에 따라 놀이 상황에서 비교적 자기중심적이며, 협력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아동이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도 누구의 욕구에 중점을 두고 해결을 해 나갈지를 추측할 수 있다. 즉, 본

연구결과와 같이 외동아는 비교적 지배전략을 사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배의 갈등해결전략은 갈등을 함께 경험한 친구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아동은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워지며,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이 저해될 것이라 예측된다.

한편, 형제유무는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제아가 외동아에 비해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상호작용으로 또래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송나리·박성연, 1993)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형제가 있는 경우,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미리 학습할 수 있으며(이현정·조성연, 2002), 형제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대인관계의 다양한 상황을 경험함에 따라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과 건설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때문(Jiao et al., 1986)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동은 오히려 형제보다는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또 다른 관점을 고려할 때(Shaffer, 2005), 외동아가 형제아와 함께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형제유무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배전략과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형제와의 상호작용은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지배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유능성을 저하한다는 점에서 아동이 갈등을 바람직하게 해결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3. 정서지능이 갈등해결전략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정서지능은 절충 및 협력전략과 지배전략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령기 후반 아동의 경우, 정서지능이 절충 및 협력전략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수라고 제시한 결과(이민영 외, 2006)와 정서조절이 떨어질수록 지배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홍선표, 2008)와 비슷한 맥락이다. 또한, 갈등상황에서 대안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사람은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한 연구(심혜숙·왕정희, 2001; Shure & Spivack, 1972)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처럼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아동은 서로의 정서를 파악하는데 비교적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고려할 수 있으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해결 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거나 친구가 자신의 생각을 오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서로의 만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잘 모색하게 된다. 반대로, 정서지능이 낮은 아동은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어렵고,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타인의 정서와 상관없이 문제를 지배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구와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절충 및 협력전략과 같이 서로의 욕구에 관심을 갖고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고, 친구들로 부터 우정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친구관계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배선영·이은혜, 2000). 정리하면,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아동은 갈등상황에서 서로의 정서를 적절한 수준에서 모

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사용하고 지배전략을 적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잘 이해하는 아동 중 자신이 원하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오히려 부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Gini, 2006; Sutton, 1999). 이를 고려해 볼 때,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여도 만약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입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동은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고, 지배전략을 사용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즉, 정서지능은 전반적으로 건설적인 갈등해결방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각각의 하위영역 발달수준에 따라 타인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정이입, 정서조절 등 각 하위영역이 상호보완적으로 발달하도록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서지능은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표현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며(전정미·유미숙, 2006), 정서활용과 정서조절은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한 연구(심혜숙·왕정희, 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아동의 정서지능이 낮을수록 대인과의 적응적 상호작용이 어렵다고 보고한 연구(Goleman, 1995)를 지지한다. 즉,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친구와 공유할 수 있는 소재를 더욱 잘 형성함에 따라 또래와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관계유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더불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상황에 적절하게 통제함에 따라 스스로가 목표한 바를 수행하는데 유리하다고 예측된다. 반면,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은 대인

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지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이러한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흥미를 상실하기 쉬워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종합하면, 절충 및 협력과 지배의 갈등해결전략은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환경의 분위기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아동 스스로가 자기 보고하는 측정법을 사용한 결과로써 아동의 자기 방어와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왜곡된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교사나 또래 등 제 3자의 관점을 함께 반영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갈등해결전략 척도는 아동이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를 떠올리며 그 친구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은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각기 사용하는 갈등 해결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송지혜 · 황혜신, 2009). 그러므로 아동의 친밀도가 높은 친구 이외에 친밀도가 낮은 또래와의 갈등해결전략도 함께 살펴보면서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는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기 후반기의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지능을 점차 낮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고(이주리, 2002),

사회적 유능성은 연령에 따라 반영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Rose-Krasnor, 1997).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하여 연령에 따른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성의 경향성을 비교하고,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기 후반에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에서 사용하는 해결전략이 형제유무 및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성을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발달하는 경로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혔다. 또한, 아동의 정서와 사회적 능력 사이에 실제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해결전략에 따른 관계의 방향성을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요소를 아동의 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이 성장하는데 있어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의 정서지능과 갈등해결전략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동이 사회에서 기대되어지는 바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가정 혹은 학교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을 발달시킴과 동시에 또래와의 갈등에 있어 절충 및 협력전략을 사용하도록 하는 통합적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가정환경에서 형제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이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사회성 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동아가 형제의 부재로 인해 놓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교사

및 또래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보완하도록 촉진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 교사가 평정하는 질문지를 사용함에 따라 비교적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을 하는 편향성을 어느 정도 해결하여 타당한 측정 을 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를 갖는다.

참 고 문 헌

김지형 · 박경자(2010). 아동의 또래 인정욕구가 우울 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31(1), 83-99.

박미진 · 김광웅(2002). 형제의 지위변인 및 형제관계 와 아동의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아동 연구**, 15(2).

배병렬(2009).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링 : 원리와 실제**. 서울 : 도서출판 청람.

배선영 · 이은혜(2000).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 결전략과의 관계. **연세생활과학논집**, 15, 80-88.

송나리 · 박성연(1993).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 력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4(1), 91-106.

송지혜 · 황혜신(2009). 아동의 또래친밀도에 따른 정 서조절전략과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지**, 18 (1), 29-39.

심혜숙 · 왕정희(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 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심리 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63-175.

우수경(2008). 유아의 성, 기질, 정서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 회지**, 15(1), 259-280.

이민영 · 김광웅 · 조유진(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 행동통제특성과 정서지능 및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 **아동학회지**, 27(6), 149-175.

이은혜 · 고윤주 · 오원정(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

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 리학회지 : 발달**, 13(39), 105-121.

이주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련된 변인들에 관 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65-78.

이현정 · 조성연(2002). 형제 자매관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3(3), 139-148.

장미선 · 문혁준(2006). 아동의 정서지능에 관련된 생 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11-21.

전정미 · 유미숙(2006).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 향. **아동학회지**, 27(3), 225-240.

정옥분(2006). **사회정서발달**. 학지사.

정현희(2002). 한국판 교사용-아동평정척도(T-CR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 : 발달**, 15(2), 73-88.

통계청(2009). 2008년 출생통계. <http://www.index.go.kr>에서 2009년 10월 15일 인출.

하지원(2004).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정서조절능 력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홍선표(200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정서지능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Dunn, J. (1983).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child- hood. *Child Development*, 54, 787-811.

Fassinger, R. E. (1987).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Counseling Psychology*, 34(4), 425-436.

Fonzi, S., Schneider, B. H., Tani, F., & Tomada, G. (1997). Predicting children's friendship status from their dyadic interaction in structured situations of potential conflict. *Child Development*, 68, 496-506.

Gini, G. (2006). Social cognition and moral cognition in bullying : What's wrong? *Aggressive Behavior*, 32(6), 528-539.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Harter, S., & Buddin, B. (1987). Children's under- standing of the simultaneity of two emotions : A

- five stage developmental sequences. *Development Psychology*, 23, 388-399.
- Hartup, W. W.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 120-126.
- Hartup, W. W., French, D. C., Laurens, B., Johnston, M. K., & Ogawa, J. R. (1993). Conflict and friendship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 behavior in a closed-field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4(2), 445-454.
- Howes, C. (1987).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in young children : developmental sequences. *Developmental Review*, 7, 252-272.
- Jiao, S., Ji, G., & Jing, Q. (1986). Comparative study of behavior qualities of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2), 357-361.
- Keltikangas-Järvinen, L. (2001). Aggressive behavior and social problem-solving strategies : a review of the finding of a seven-year follow-up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Crimin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11, 236-250.
- Laursen, B., & Collins, W. A. (1994). Interpersonal conflict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2), 197-209.
- Lemerise, E., & Arsenio, W.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 107-118.
- Mavroveli, S., Petrides, K. V., Rieffe, C., & Backer, F. (2007).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eer-rate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5, 263-275.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educators* (pp.3-31). New York : Basic Books.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Piaget, J. (1964). *Six Psychological Studies*. New York : Vintage.
- Rabinowitz, F. E., & Cochran, S. V. (1994). *Man alive : A primer of men's issues : Who am I? Everyman in every man*. Pacific Grove, CA : Brooks/ Cole.
- Rose-Krasnor, L. (1997). The nature of social competence : A theoretical review. *Social Development*, 6, 111-135.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haffer, D. R. (2005).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Belmont, CA : Wadsworth/Thompson Learning.
- Shure, M. B., & Spivack, G. T.(1972). Means-ends thinking, adjustment and social class among elementary school ag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8(3), 348-353.
- Sutton, J., Smith, P. K., & Swettenham J. (1999). Social cognition and bullying : Social inadequacy or skilled manipulatio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3), 435-450.
-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79-97.
- Yeates, K. O., & Selman, R. L. (1989). Social competence in the schools : Toward an integrative developmental model for intervention. *Developmental Review*, 9, 64-100.

2010년 2월 28일 투고, 2010년 5월 4일 수정
2010년 5월 25일 채택